

KT-1 2천시간 시험비행 기록

XKO-1 저속통제기 시험비행 포함

순수 국내 독자 기술진에 의해 개발된 공군의 KT-1 기본훈련기가 2천시간 시험비행 기록을 수립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지난 6월 12일 공군 사천기지에서 국방부와 공군, 제직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KT-1 2000시간 시험비행 기념식을 갖고 훈련기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널리 알렸다.

지난 '91년 12월 12일 첫 비행을 시작해 약 10년간에 걸쳐 2천시간의 시험비행을 가진 KT-1은 국방과학연구소와 한국항공우주산업이 개발·생산을, 그리고 공군이 운용하는 최초의 국내 개발 항공기이며 민·관·군이 힘을 모아 탄생시킨 걸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항공기를 자체 개발하고 시험 비행을 통해 항공기 성능을 검증하는 일은 매우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첨단 핵심기술 분야이다.

특히 검증되지 않은 시험 비행을 위해 목숨을 건 시험 비행 조종사만 20여명이 넘고 죽을 고비를 넘긴 적도 여러 번 있었다.

하지만 조종사들은 “우리 기술로 제작한 국산 항공기를 시험 비행한다는 보람이 가장 크다”면서 “첫 비행에서 기대보다는 두려움이 앞섰던 것이 솔직한 심정이었지만, 시험 비행 횟수가 더해질수록 우리 항공기에 대한 정겨움과 성능의 우수함에 놀랐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공군, 제7회 항공전략 국제 학술심포지엄 개최

「남·북 화해협력시대의 공군력 발전방향」 주제로

공군 은 지난 5월 30일부터 이틀간 공군대학에서 국내외 인사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남북 화해협력시대의 공군력 발전방향」을 주제로 항공전략 국제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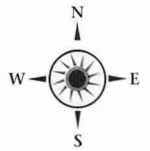
유동적인 한반도 주변 안보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항공전략 사상과 이론에 대한 저변확대 도모 및 대한민국 공군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95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국제 학술심포지엄은 올해로 7회를 맞고 있다.

한·미·일 3개국 5명의 항공전략 전문가들의 주제 발표 및 토론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임용순 성군

관대 대학원장은 「동북아 안보환경과 화해시대의 안보 상황에서 한국 공군력의 발전」이란 논문에서 “공군력은 정밀공격 능력과 부수적 피해의 최소화 능력으로 국가가 사용할 수 있는 최대의 정치적 수단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美 공군참모총장 특별고문인 링크 예비역 소장은 「성숙되는 항공우주력」의 주제로 “걸프전을 통해 얻은 가장 큰 교훈은 최초로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전역수준의 항공우주력이 사용된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연합사 부참모장 마이클 던 소장은 「동북아시아 안보정세」란 주제에서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은 상비군의 축소와 주한, 주일 미군의 감축 및 철수로 이어



질 것이며, 이는 곧 한국 공군을 현대화하는데 큰 자극이 될 것이다. 전략적으로 통일된 한반도는 확장된 지상공격 방위를 위해 속도와 기동성을 갖춘 항공력에 더욱 의존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평화적 통일이 되면 한국 공군은 원거리 능력이 향상된 정밀무기 위주로 나아갈 것이며, 위기 발생시 신속전개와 행동반경의 확

보를 위해 공중급유기와 공중조기경보통제기(AWACS)가 필요할 것이다"라고 피력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급변하는 국내외 안보정세 속에서 한국 공군의 임무 및 구조변화에 따른 리모델링을 제시하고 21세기 한국 공군이 나아갈 구체적 방향을 제시해 주어 참석자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다.

유로파이터 한국-유럽 방산 컨퍼런스 개최

한국과 유럽 방산업체간 협력관계 모색

유로파이터 인터내셔널이 주최하는 '한국-유럽 방위산업 컨퍼런스'가 6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 동안 신라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이 컨퍼런스는 한국공군의 차세대전투기 구매사업에 참여 중인 유로파이터의 입찰 활동을 지원하고, 한국 방위산업체와의 공조 및 협력관계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6월 11일, 유로파이터 인터내셔널 세자르 지아니(Cesare Gianni) 사장(사진)의 개회 선언으로 시작된 이 행사는 유럽지역 참가자들의 한국 방위산업 시설 시찰과 한국과 유럽 기업들간의 산업 협력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그룹별 토론프로그램 등으로 진행되었다.

총 17개의 한국 기업들과 약 일주일간의 컨퍼런스를 통해 한국과 유럽의 방위산업 협력 방안을 논의한 14개의 유럽지역 기업들은 유로파이터를 통해 창출되는 방위산업 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세계 유수의 방산 기업들이다.

이 행사의 의의는 차세대전투기 구매사업인 'FX프로젝트'와 관련, 절충교역률을 30%에서 70%로 상향 조정하라는 한국 정부의 요청에 부합하기 위한 유로파이터의 강한 의지를 보여준 데 있다.

지아니 유로파이터 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유로파이터 타이퐁이아말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전투기"라고



강조하고 "나토 회원국인 영국,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4개국에 의한 공동개발 성과는 파트너십이 무엇인가를 보여 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우리의 제안은 간단히 말해 한국을 우리의 파트너로 초대하는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 제안은 한국의 목표와 우리 목표를 결합, 윈-윈의 결과를 모색하는 데 있다. 우리는 한국 공군에 성능면에서 가장 우수한 최신에 전투기를 제공하는 것 외에도 한국의 항공산업 발전을 위해 한국이 필요로 하는 항공기를 현지에서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유로파이터 인터내셔널측이 한국측에 제안한 절충교역 프로그램의 가치는 28억 달러에 달하며, 현지 부품 제조부문 40%(11억 2천만 달러), 기술이전 부문 35%, 훈련 및 유지보수 25%의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